

2024-04-15 (2024-16호)

04월 15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중동 확산 우려·4조원 이상 외인 배당 수급... 멀지 않은 '빅 피겨'

서울, 4월1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위험회피 확산과 맞물린 외인 배당금 역송금 수급 영향에 상승 변동성을 대거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외환당국 대응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의 강한 경제와 끈적한 물가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시장 전망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달러는 주요 통화에 비해 강세 압력을 키우고 있다. 달러지수는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106선으로 올랐다.

강달러 확산에 달러/원도 경총 뛰었다. 12일까지 5거래일동안 약 30원 급등한 환율은 1년 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꾸준한 역외 매수세에 레벨을 높여온 환율은 중공업체 등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세로 환율 속도가 조절되는 듯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장중에도 환율 상승 변동성이 확대돼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안전자산 쏠림 현상까지 짙어져 환율은 이제 새 '빅 피겨'인 1,400원대가 그다지 멀지 않다.

이번 주 환율 움직임을 견인할 핵심 재료는 단연 글로벌 달러 향방이다. 미국 경제와 통화정책 차별화 테마가 시장 분위기를 주도해온 가운데 중동 리스크 사태 전개 양상 따라 강달러가 더 진행된다면 달러/원은 1,400원대 앞 저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미국 3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의 핵심지표도 대기중이다.

설상가상으로 금주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배당 지급이 대거 몰려있어 외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금주 외인 배당 뭉은 4조원을 넘는다.

그간 외환당국의 소극적 시장 대응을 두고 시장 안팎으로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확산과 계절적인 외환수급 압박에 당국이 얼마나 강경하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번 주중 전 세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5일부터 열리는 IMF/세계은행 연례 춘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모인다. 중동 리스크 확산 따라 대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갈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중국 핵심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있다. 중국 1분기 GDP를 포함해 3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의 결과도 관심이다. 로이터 사전조사에 따르면 중국 1분기 GDP는 직전 분기 5.2%를 하회하는 4.6%로 전망됐다.

지난 주말 나온 중국 3월 수출입지표는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금리를 결정해 발표하는데 로이터 사전조사에서는 금리 동결에 예상됐다.

위안 프락시 통화로 원화가 작용하는 가운데 위안 약세 변동성 확대 재개 여부도 원화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달러/원 환율 상승 속도에 가속이 제대로 붙을지, 그리고 이를 당국이 어떻게 막아설지, 녹록지 않은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세계 5대 이슈

### ⊙ 미국 소매판매 및 기업 실적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6월 금리 인하 전망을 버렸고, 견고한 인플레이션이 경제 호조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이제는 9월이 첫 인하 시기로 유력해 보인다.

이에 따라 15일 발표될 미국 소매판매 데이터와 주요 기업 실적에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미국의 3월 소매판매는 0.3%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상보다 낮았던 2월 증가율 0.6%보다도 낮아진 수치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디스커버파이낸셜서비스, 프록터앤갬블 등의 실적 결과도 소비자 지출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다. 넷플릭스, 유나이티드헬스그룹, LVMH와 통신사 노키아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 ⊙ 중국 1분기 GDP 및 월별 주요 경제지표

이번 주에도 중국 경제지표가 발표되며, 투자자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중국의 성장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6일에는 3월 주택가격 및 소매판매, 산업생산 데이터와 함께 1분기 GDP 수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의 1분기 GDP 전년비 성장률은 1년래 최저치인 4.6%를 기록해 추가 부양책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서 전망됐다.

로이터 조사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 86명의 전망치 중간값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도 4.6%로 공식 목표치인 5.0% 부근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속적인 생산자 물가 디플레이션은 불안정한 회복세를 가리키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여전히 성장의 걸림돌도 작용하고 있다.

### ⊙ 인도 총선

인구 기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는 오는 19일부터 6월1일까지 7단계에 걸쳐 총선을 실시하며 결과는 6월4일부터 나올 예정이다.

나렌드라 모디 현 총리는 이례적으로 3연임에 도전하고 있으며, 모디 총리의 인도국민당(BJP)이 이끄는 정치연합 국민민주동맹(NDA)이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금융시장은 상승세를 보였다.

인도의 벤치마크 주가지수인 니프티50과 센섹스, 그리고 국내 중심의 광범위한 중형주 지수는 지속적인 국내 자금 유입과 강력한 경제 전망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가리키고 있다. 낮은 확률이지만 NDA가 총선에서 질 경우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 ⊙ **英 소비자 물가**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17일 발표될 영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OE가 실시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판매 가격과 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씨티/유고브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금리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 시작 시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당초 6월 첫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트레이더들은 지금은 8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 베팅이 약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 ⊙ **IMF / 세계은행 춘계 회의**

전 세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5일부터 열리는 IMF/세계은행 연례 춘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모인다.

경제 전망과 금융 안정에 관한 수많은 보고서가 발표되고 G20과 G7 정책결정권자들도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미국 경제가 앞서가는 반면 나머지는 다소 주춤하는 이중 궤적과 이에 따른 통화 정책 및 금융 시장의 결과 등 검토해야 할 주제는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중동의 긴장이 유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과연 승리했는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부와, 신흥 시장이 여전히 높은 부채 부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등이 논의될 것이다.

##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 美 에너지주 급등, 견조한 성장과 인플레이션 우려 반영

뉴욕, 4월15일 (로이터) -

투자자들이 유가 상승과 예상보다 강한 경제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부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면서 미국 에너지업종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S&P500에너지업종지수는 올해 약 17% 상승해 전체 S&P500지수 상승률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최근 몇 주 동안 상승세가 가속화되어 지난 한 달 동안 S&P500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업종이 됐다.

주요 동인 중 하나는 유가다. 미국 원유 선물은 예상치 못한 미국 경제 호조와 중동 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연초 대비 20% 상승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에너지주 상승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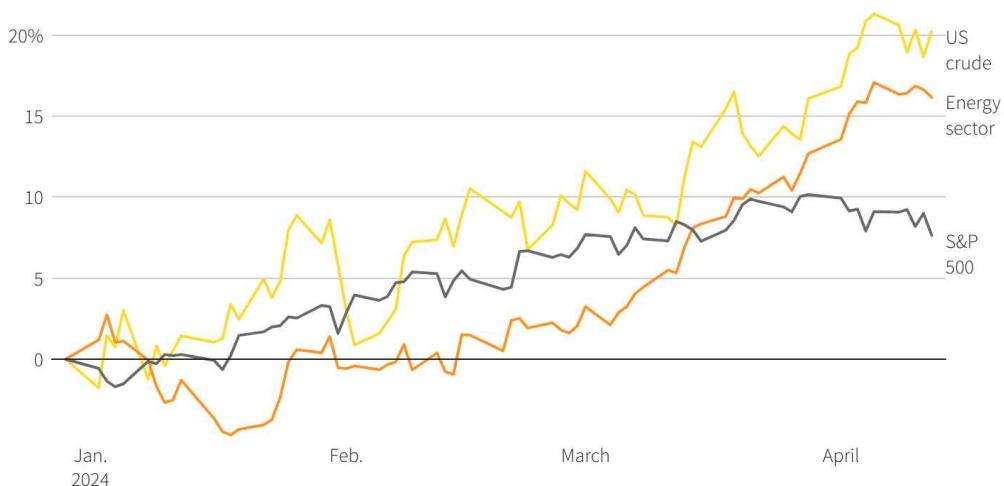
웰스인핸스먼트그룹의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아야코 요시오카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면 헤지 방법은 원자재 익스포저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엑손모빌, 셰브론을 포함한 에너지 주식에 비중확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넷플릭스, بانک오브아메리카, 프록터앤갬블 등의 분기 실적이 발표되며, 15일 나올 미국 3월 소매판매는 지난 10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이어 미국 소비자 행동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 US energy stocks light the way

The energy sector has beaten the broader market this year, helped by a rise in oil prices



Source: LSEG | Graphic by Lewis Krauskopf

미국 증시 랠리가 지난해 상승을 주도했던 성장주 및 기술주를 넘어 올해 에너지주까지 확대됐으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고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비원자재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최근 몇 주 동안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주식 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인기가 높은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모간스탠리와 RBC캐피탈마켓츠의 전략가들은 에너지주에 대한 강세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RBC의 로리 칼바시나는 메모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함께 "경제가 실제로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에도 주목하고 있다. LSEG 데이터스트림에 따르면 S&P500 에너지업종 주가수익비율은 13배 정도인데 전체 S&P500지수 주가수익비율은 거의 21배에 달한다.

중동 긴장이 완화되거나 글로벌 성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유가가 타격을 받아 에너지주에 대한 전망이 흐려질 수도 있다.

경제 성장이 강해지고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경우에도 올해 실적이 좋았던 산업 및 금융 등 다른 업종으로 투자자들이 이동할 수 있다.

모닝스타웰스의 미주 지역 최고투자책임자인 마르타 노턴은 자신의 회사가 에너지 파이프라인 회사들 및 기타 마스터합자회사(MLP)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연준의 피벗 시기와 경제가 실제로 둔화되는 시기는 정말 열린 질문이라는 것"이라며 "다양한 결과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4월15일(일)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08:00)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IASB 위원장 면담 (10:30)
-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WBG 춘계회의」등 참석 (12:00)
- ⊙ 한국은행: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12:00)

4월16일(화)

- ⊙ 한국은행: 2024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 위해 출국 (11:00)
- ⊙ 한국은행: 2024년 2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 공개 (2024년 제6차(3.28일 개최, 비통방)) (16:00)
- ⊙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2:00)
- ⊙ 한국은행: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IMF-WBG 춘계회의 참석 (16~23일)

4월17일(수)

-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진행(잠정) (09:00)

4월18일(목)

- ⊙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10:00)
-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 (11: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12:00)
- ⊙ 한국은행: 2023년 결제통화별 수출입(확정) (12:00)
- ⊙ 기획재정부: '24.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00)

4월19일(금)

- ⊙ 기획재정부: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11:00)
-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잠정) (11:00)
- ⊙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24년1/4분기 동향 및 2024년 2/4분기 전망) (12:00)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4월15일 (월)

- ⊙ 로리 로건 달러스 연방은행 총재, IMF-BOJ 컨퍼런스 패널 토론 참석 (오후 3시30분)
- ⊙ 휴장국가: 태국(16일까지), 인도네시아

4월16일 (화)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2024년 스탠포드 경제정책연구소 회의서 연설 (오전 9시)
- ⊙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연준 주최 국제 통화정책 리서치 포럼에서 연설 (오후 10시)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 경제클럽에서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와 대화 주재 (17일 오전 1시30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윈스턴-살렘 로터리클럽서 연설 (17일 오전 2시)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캐나다 경제 관련 워싱턴 포럼 토론 참석 (17일 오전 2시15분)

4월17일 (수)

- ⊙ IMF-세계은행 2024년 춘계회의 (20일까지)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사우스 프랭클린 서클 다이얼로그 시리즈서 연설 (18일 오전 6시30분)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국제금융협회 글로벌 전망 포럼 토론 참석 (18일 오전 8시15분)
- ⊙ 휴장국가: 인도

4월18일 (목)

- ⊙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2024년 뉴욕 연방은행 지역 및 커뮤니티 बैं킹 컨퍼런스 개최사 (오후 10시5분)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세마포 세계 경제 서밋 토론 참석 (오후 10시15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포트 로더데일 프라스페리티 파트너십 회의서 연설 (19일 오전 0시)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마이애미대학교 허버트경영대학원서 연설 (19일 오전 6시45분)

4월19일 (금)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SABEW 연례 컨퍼런스 Q&A 세션 참석 (오후 11시30분)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시장진단) - 금통위 소화하며 원화 약세 가속화... 한은 총재 환율 발언 영향?

서울, 4월1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소화하면서 달러/원 환율 상승세가 한층 가팔라졌다.

달러/원 환율은 12일 한때 1,375.5원까지 급등해 전일 종가 대비 11원 이상 올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시기 조정에 달러 강세가 확산됐고, 이를 반영해 달러/원 환율이 최근 상승 중이만 장중 수급 저항과 당국 개입 변수 등에 최근 일간 환율 변동폭은 조절됐다.

하지만,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화하면서 달러/원 환율은 유독 상단 저항이 약화되며 오름폭을 키웠다. 그 결과 환율은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370원대 중반까지 훌쩍 상승했고 지금 현 분위기로는 1,380원을 향한 추가 상승도 어렵지 않다는게 시장참가자들의 진단이다.

### ▲ 한은 총재 환율 발언에 큰 불편함 느끼지 않은 환시

한은은 이날 정책회의를 열고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동결할 것으로 폭넓게 예상한 터라 이같은 금리 결정 직후 환율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한은이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통화긴축 기간과 관련한 표현을 이전 충분히 장기간에서 충분히 지속한다는 쪽으로 수정했다.

이를 확인한 이후 환율은 소폭 반응하긴 했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면서 환율은 적극적인 상승시도에 나섰다.

이 총재는 미국의 피벗 시그널이 각국의 통화정책의 탈동조화 여건을 만들었다고 밝히며, 국내 통화정책 여력도 작년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A은행 외환딜러는 "한은 총재는 최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장기간 긴축 기조에서 장기간도 빠지고 미국하고 디커플링 언급하는 점들이 결국은 금리인하 정당성을 미리 좀 얻어놓으려는 것으로 시장은 본 듯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환율과 관련 이 총재 발언은 특히 조명받았다.

이 총재는 "달러 강세 영향으로 우리 문제가 아닌 점, 과거와 달리 서학개미도 많고 해외 순자산이 굉장히 늘었다"면서 해외자산이 확대되는 선진국형 외환시장 구조라고 밝혔다.

물론 이 총재는 원화가 주변국 통화의 프록시가 되고 펀더멘탈에 비해 과도하게 절하되는 면이 있는지 유심히 보고 있다면서 쏠림현상이 일어나 환율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시장안정조치를 취해 환율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다소 균형잡힌 환율 관련 발언을 내놓았지만, 외환당국 수장으로서 환율 쏠림현상과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보다 방점을 찍었을 수도 있다.

당국은 최근 환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역외 매수세에 따른 쏠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비거주자 NDF순매입 규모는 264억달러로 2016년 4분기 이후 최대였다.

다만, 최근 중공업 수주와 수출 호조에 따른 달러 물량이 환율 상승을 조절함에 따라 환율의 과도한 움직임에 따른 부작용을 아직 크게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강하다.

하지만, 이날 시장참가자들은 한은 총재의 환율 관련 발언 수위를 크게 높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다.

B은행 외환딜러는 "환율의 절대적인 레벨이 이미 높은 게 사실이고 연고점도 명확하게 뚫은 상황에서 한은 총재 발언 상으로는 환율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듯했다"면서 "이에 달러 매수세가 더 붙었다"고 말했다.

C은행 외환딜러는 "금통위 이후 섯포지션도 정리됐다"면서 "환율이 더 상승 속도를 붙일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편집 문윤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시장진단) - 美 물가 충격·밸류업 정책 약화 우려에도 국내 주식 사들이는 외인, 배경은

서울, 4월11일 (로이터) 박예나·이지훈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채권금리 급등과 달러 강세 확산에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야권이 압승함에 따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1%대 하락했고, 그간 밸류업 수혜주로 부각됐던 금융업종지수는 3%대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현재(오후 2시22분) 코스피가 소폭 상승 중인 가운데 금융업종지수는 여전히 1% 하락 중이지만 낙폭을 줄였고, 또 다른 대표 수혜주였던 자동차업종 주가는 큰 폭 상승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4%대, 기아는 3%대 각각 급등 중이다.

또한 국내 반도체주도 강세폭을 넓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1%대, SK하이닉스는 2%대 각각 오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동차주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지지하고 있다.

모간스탠리는 이날 투자자 세미나에서 총선을 앞두고 이미 코스피가 조정 받는 등 이미 선거 결과를 가격에 반영했다면서 패닉셀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었던게 확인된다고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도 견조한 외인 주식 매수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인들은 현재 8천억원 가까이 순매수 중인 가운데 이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지는 상황에서 제약적인 금리 여건을 견딜 수 있는 환경에서 펀더멘털이 견조한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이제는 소수 종목만 올라갈 수 있겠다는 인식 속에 펀더멘털이 견조한 기업들만 랠리를 펼치고 있다"면서 "이에 국내 증시도 펀더멘털이 긍정적인 업종인 반도체와 자동차 쪽으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미국에서 조정은 크게 낮지만 마이크론 같은 주식은 크게 빠지지 않았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약화에도 반도체, AI 쪽은 견고하다는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보험과 증권업 등은 약세지만, 이미 기업 밸류업 정책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정책 교집합도 적지 않은 데다 밸류업이 뒷받침되는 자동차 업종에 관해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 (분석) - 엔 약세, 예상과 달리 BOJ의 금리 인상 막을 수도

도쿄, 4월12일 (로이터) -

엔화 가치가 34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수입 비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이미 취약한 소비와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면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일본은행(BOJ)의 고민이 복잡해졌다.

이러한 약세가 지속돼 중소기업이 임금 인상을 꺼린다면 BOJ는 적어도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인상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정부 관리 및 소식통 5명이 밝혔다.

두 소식통은 BOJ가 4월26일 회의에서 올해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2026년까지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연내에 금리를 제로에서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OJ는 그러나 소비와 공장 생산 부진 등으로 새로운 분기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한 소식통은 "임금이 예상대로 상승할 수 있지만 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은 이미 약한 소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엔 약세가 BOJ가 곧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일부 통화 트레이더 및 BOJ 관측통들의 기대와 배치되는 것이다.

조기 금리 인상 전망은 장기 금리를 제한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엔 약세가 나타나면서 정치인들의 비난을 받아 BOJ가 지난해 채권 수익률 관리 정책을 조정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아타고 노부야스 전 BOJ 관리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인해 BOJ가 금리 인상에 앞서 성장세가 실제로 반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8월15일 발표될 4-6월 GDP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쿠텐증권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아타고는 "엔 가치가 매우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 한 여름까지 BOJ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 엇갈린 축복

엔 약세는 일본 경제에 엇갈린 축복이다. 엔 가치 하락은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연료, 식품 및 원자재 수입 비용을 상승시켜 가계와 소규모 소매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엔 약세로 인한 여파는 BOJ에게 있어 민감한 시기에 찾아왔다. 지난달 8년 간의 마이너스 금리를 끝낸 BOJ 정책결정권자들은 다시 금리를 인상할 적절한 시기를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대기업의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서비스 물가가 더 상승하는 것이 금리 인상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신호가 엇갈리고 있다. 생활비 증가가 가계에 타격을 주면서 소비가 모멘텀을 잃었고, 이에 기업들은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

BOJ는 최근 보고서에서 소규모 기업이 작년 또는 그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소규모 기업의 임금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올해 후반에야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한 소식통은 "소규모 기업의 임금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만 실제 임금 인상은 아직 광범위하지 않다"면서 "긍정적인 임금-인플레이션 사이클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지 확인하려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을까지 기다린다면 6월이나 7월 인상 가능성이 사라지고 9월, 10월 또는 12월 회의에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금리 인상 시기는 10-12월이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통화 부양책 축소 여지를 시사한 우에다 총재의 발언 이후 7월에 베풀고 있다.

과거 엔 움직임이 경제 상황에 영향을 주어 BOJ의 정책 조정을 초래한 적은 있지만, BOJ의 정책 자체가 엔화를 명시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에다 총재는 엔화 움직임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BOJ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취약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우세해 BOJ가 신중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BOJ의 정책위원 9명 중 2명은 3월 마이너스 금리 종료 결정에 반대했다. 다무라 나오키 같은 매파조차도 "느리지만 꾸준한"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요인도 조기 금리 인상에 장애가 된다.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자들에게 "안화적인 통화 환경이 지속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해 초저금리 지속을 선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집권 여당의 한 간부는 로이터에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무성 관계자도 "소비가 약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서 "BOJ가 다시 금리 인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美 대선 앞두고 바이든 선두... 트럼프와 격차 벌려**

워싱턴, 4월11일 (로이터) -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최신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월요일까지 5일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등록 유권자의 약 41%는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으며,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지난 3월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바이든이 1%포인트 앞섰던 것에 비해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등록 유권자 응답의 오차 범위는 4%포인트이며, 11월5일 선거를 많은 유권자가 여전히 부동층에 머물러 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등록 유권자 중 약 22%는 아직 후보를 정하지 않았거나, 다른 선택지로 기울어 있거나, 아예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3월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6%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신 반대 운동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와 바이든과 함께 대선에 참여한다면 그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4월 조사에서는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율이 공개되지 않았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